희망에 벅차 불 칼을 마중 나가는 자

(열왕기하 9:1~37)

17. 이스르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18.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19.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20.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21.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22.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23.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24.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희망에 벅차 불 칼을 마중 나가는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희망에 벅차 불 칼을 마중 나가는 자'
희망처럼 절대적인 덕목으로서 온 세계에서 추앙받는 가치는 달리 없을 것입니다.
'희망'은 더 나은 미래를 예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현재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규정해줍니다. 그 희망을 이루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함을 생각하게 하는데, 삶의 어려움과 장애와 고통과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취적인 역동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갖는 희망은 타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의 가장 큰 특징적인 속성이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결과는 한마디로 불 칼에 맞아 멸망을 당하는 삶인데, 이 땅위에서 평면상의 미래를 향해 갖는 희망이 성경적으로 타당한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 돈의 가치를 최고로 판단하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권력이 좋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승진을 희망하려면 승진이 좋다는 판단 때문에 가능합니다.
타락 전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지 못하므로 희망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데 희망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은 타락 후에 나타난 것이므로 이런 유의 희망은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락의 특징적인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소망을 말하지만 이 지구의 평면상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에게 소망과 희망과 미래는 위로부터 옵니다. 지금 내 위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둔 자라야 이 세상에 오실 주님을 구세주로서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위를 향하지 않으면 오실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 앞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이 땅에서의 미래는 있습니다. 2015년의 미래가 2016년이었던 것처럼 2017도 오고 2018년 동계올림픽 때도 올 것이지만 그러나 이 미래는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위를 향하여 마음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위에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을 규정하시고 나를 장갑 삼으셔서 필요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는 이 세상을 희망하는데 이 희망 속에는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희망을 이루면 기쁘고 만족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희망을 이루고 싶어 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확신하지 않는 희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타락의 결과이면서 타락의 속성인데, 또 다른 희망의 두드러진 속성은 기쁨과 만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성취하기만 하면 기쁨과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희망은 에덴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쁨의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도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빈 상태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마음의 빈 상태를 채우는 것이 만족이고 만족함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갖는 것은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에덴 지향성으로 기쁨과 만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쫓겨난 에덴의 경계는 불 칼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본질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본문의 이세벨에 대한 얘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후가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 왕에 대해서 말 할 때에 22절에서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세벨이 육체적으로 음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한 것이 간음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이 의미하는 것은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붙잡아서 에덴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 기쁨의 동산은 불 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어 기뻐하고 만족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돈으로 에덴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반드시 불 칼에 부딪히게 되므로 접촉하기 전에 이미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희망을 향해 움직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경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극복해야 될 장애로 여기면서 오히려 마음을 북돋아서 초인적인 힘을 내서 돌진하여 불의 뜨거움을 무시하고 칼날에 접촉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목공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수들이 돌아가는 테이블 톱에 나무를 대면 나무가 쫙 갈라집니다. 이 땅에서 돈 벌고 싶고 대통령되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 기쁨과 만족이 있는 에덴동산을 향해가는 것인데, 그것은 돌아가는 테이블 톱 위에서 나무가 갈라지는 것처럼 나를 불 칼의 톱니에 가져다 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는 망할 뿐이지 절대로 원하는 기쁨과 만족과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겠지만 영원히 마음이 빈 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는 속아서라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희망 삼을 수 있었지만, 지옥에서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빈 채로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 곧 지옥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채울 수 없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기에 '희망에 벅차 불 칼을 마중 나가는 자'라는 제목이 붙은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엘리사가 국외적으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는 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국내적으로 군대장관 중의 한 사람인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로부터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수행할 첫 번째 과제는 아합 왕가에 속한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절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요람 왕을 죽이고, 남 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도 외삼촌에게 병문안 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그 유명한 이세벨도 예후의 지시를 따라 두 내시가 높은 탑 위에서 내동댕이쳐져서 죽게 되자 개들이 먹고 두개골과 발과 손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비참한 죽음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알 숭배가 편만하였고 그 바알 숭배를 편만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던 신에 대한 숭배입니다. 이러한 바알 숭배를 모든 백성에게 퍼뜨렸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자 되는 희망을 준 것입니다.

바알은 십계명처럼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신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부자 되는 희망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우리도 풍요로움과 부흥을 이루는 가운데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희망으로 가득 찬 나라에 희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쁨과 만족을 향해 돌진하는 추진력도 강해서 에덴의 불 칼과 부딪히게 됩니다. 예후가 칼을 들어 죽였지만 사실은 풍요와 다산을 희망했던 자들이 에덴의 불 칼을 향하여 다가가 죽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직접 가지 않고 제자를 변방에서 아람과 전쟁 중이었던 예후에게 보냅니다. 장관들이 섞여있는 가운데 예후를 불러내어 골방에 들어가 기름을 붓고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7~10절에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놓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 이스르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할 때에 제자를 보내는 엘리사도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하는데 '예후로부터 도망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자는 기름을 붓고 곧 바로 도망갑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듯 지체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도망을 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체하지 말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도망을 하라'고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후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서 이스르엘 성읍으로 가서 요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람은 지금 아람과의 전투에서 입었던 부상으로 누워있었던 상태였고 또한 남 왕국 유다의 아하시야가 외삼촌 요람을 병문안 와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파수꾼이 한 군대가 이스르엘을 향해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하자, 요람 왕은 사신을 보내어 '평안이냐'고 묻게 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있던 요람 왕은 아람과의 전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매우 궁금했던 차에 군대가 오는 것을 보자 '평안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아람과의 전투가 승리했는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 사자(使者)를 보냈는데 오히려 사자들이 예후의 기세를 보고 그 행렬에 가담을 합니다.
결국 파수꾼이 가까이 온 이들을 보자 군대장관 예후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자 요람 왕과 아하시야 왕이 승리의 희망에 부풀어서 아픈 몸을 일으켜 예후를 마중 나갑니다.
요람 왕은 풍요와 다산의 삶을 추구하다가 부상을 입었으니 승리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도망하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행동으로 요람 왕은 예후를 마중 나갑니다.
예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외에 이 땅에 희망을 품고 사는 자들을 토막 내기 위한 에덴의 불칼이었는데, 요람은 이러한 예후를 향해 기대와 희망에 벅차서 두 손 들고 마중을 나갔던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요람이 예후를 만난 곳이 이스르엘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곳은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간계가 합쳐져서 나봇을 죽이고 강탈했던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후는 마중 나온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요람은 예후와 마주하게 되어서야 반역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소리치며 뒤에 있던 아하시야를 향해 도망쳤으나 말씀대로라면 등 뒤에서 '두 팔 사이를 쏘니 맞아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생각해보면 모습이 이상합니다. 등 뒤를 쏘았는데 두 팔 사이를 맞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등 뒤에서 심장이 관통한 것이 아니라 두 팔 사이를 관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요람 왕이 승리에 대한 기대에 벅차서 에덴의 불 칼인 예후를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예후를 환영하려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성경이 바로 이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등 뒤에서 쏜 화살을 표현할 때 두 팔 사이를 맞혔다고 하는데 두 팔 사이를 맞힐 때는 정면을 보고 두 팔을 벌리고 있을 때 가슴에 화살이 박혔을 때 두 팔 사이를 맞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곧 나를 토막 내려는 에덴의 불 칼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마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자녀의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야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원하는 것인데 곧 에덴의 불 칼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껴안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의 웅지를 펼쳐보려고

하는 것도 에덴의 불 칼을 두 팔 벌리고 껴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향해서 갈6: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었습니까? 희망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희망은 죽은 다음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 이 땅의 평면에서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는 것은 나를 반 토막 낼 에덴의 불 칼을 두 팔을 벌리고 껴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희망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희망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불 칼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불 칼은 꺼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은 자들이 에덴을 향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에덴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 우리 마음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위한 에덴으로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희망할 만한 것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불 칼을 꺼야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기를 기도하고,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고백할 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에덴에로 진입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미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 미래를 내가 갖는 것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죽기를 생활화함으로서 희망과 기대에 벅차 두 손 벌려 에덴의 불 칼을 껴안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